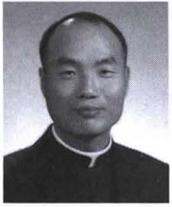


강론 ...

## 눈부시게 빛난 삶(마르 9,2~10)



김주철 신부  
(중앙성당 보좌)

예수님께서서는 길에서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변화의 모습에서는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때 예수님의

의 태양은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겨울의 태양은 그 모든 성장을 멈추어 쉬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빛을 느끼는 섬세함만이 그 때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변모는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마르 9,7) 하신,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의 변화이다. 이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겸손으로 헛된 말이나 헛된 행동 없이 살아온 눈부시게 빛난 예수님의 삶에서 온 것이다.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마천장이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마르 9,2-3)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제자만을 동행시키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많은 군중 앞에서 그분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군중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그러나 모두에게 보이지 않으신 그분의 의도는 무엇일까?

군중은 항상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늘 그분 가까이에서 먹고 자고 함께 했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군중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에만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만이’의 눈을 뜨고 ‘너만이’의 귀를 가진이가 없고, ‘너마저도’의 지나가는 무리일 뿐이었다. 충분히 말해주고 충분히 보여 줘 줘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분 안에 머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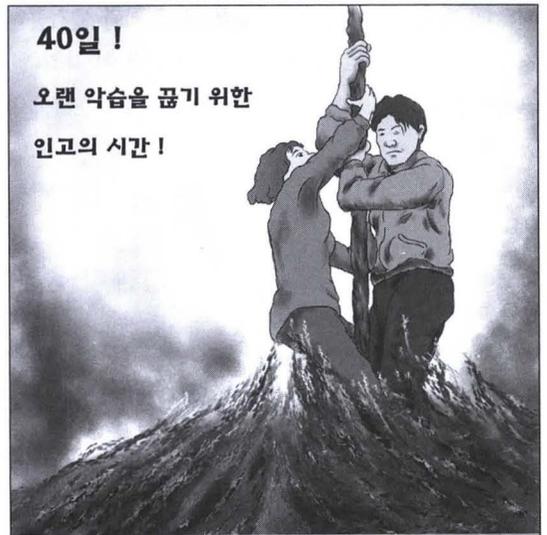
세상은 누가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세상의 변화는 내가 변화될 때만이 가능하다. 마치도 봄의 태양은 새싹을 틔우고, 여름의 태양은 그 싹을 키우고, 가

### 숲머리 생각

**40일 !**

**오랜 악습을 끊기 위한**

**인고의 시간 !**



문정섭  
(베드로)

# 이스라엘의 멸망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마침내 호세아 제 구 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다가 할라 지방과 고잔의 하볼강 연안과 메대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열왕하 17,6)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다. 하느님 백성의 한 축이었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를 내어주고 말았다. 정통 유다 왕실을 벗어나 야곱 가문의 열 지파를 다스려왔던 그들이었지만 영예는 커녕 비운의 결말을 맺고 말았다. 솔로몬과 유다 왕실의 불충실로 나라가 분열된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느님 백성은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불행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

하느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았겠지만 대권을 이어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길을 잘못 들었다. 성소가 없던 이스라엘에 억지로 성소를 세운 것이 과오의 시작이었다. 여로보암 안에 자리잡았던 항거의 마음은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전락하였고 참된 성소인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거짓된 성소에 참된 예배는 없고 참된 믿음 또한 불가능하다. 억지와 임시 변통으로 성립된 나라에 정통성이 자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만과 반란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던가.

왕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사제와 일반 백성들도 신앙을 잃

었고 현세적 이득을 위해 이방신들의 헛된 약속을 추앙하였다. 겉으로는 하느님 백성인양 했으나 마음은 우상을 향했고 그것들을 좇기에 더욱 바빴다. 하느님은 결코 매력있는 분이 아니시고 잘못만을 질책하는 훈육 선생님과도 같다. 선진 문명과 문화는 이방신을 자랑하기에 충분하였고 그 신들을 섬김에 죄의식은 없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강한 훈계가 남아있지만 지나간 일일 뿐 하느님의 위용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불신앙의 깊은 타락 속에는 죄의 악순환만이 남을 뿐이다. 병색 짙은 얼굴에 죽음이 찾아오듯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렸다. 수 없는 경고에도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누군들 하느님 앞에 탓할 수 있으랴. 옆질러진 물을 되 담을 수 없듯이 정도를 넘으면 회개도 불가능해진다. 나라야 망하면 다른 나라가 또 서겠지만 사람 목숨은 단 하나이니 멸망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의 경고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입당송** 시편 27(26), 8,9 참조

주님, 제가 주님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주님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창세 22,1-2,9,10-13,15-18

**화답송** 시편 116(115), 10과 15,16-17,18-19 (◎ 9)

◎ 산 이들의 땅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제2독서** 로마 8,31-34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르 9,2-10

**영성체송**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낭만에 대하여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난생처음 신기루를 보았다. 멀리서 보면 마치 오아시스를 찾아온 물소떼들이 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가로운 풍경이다. 하지만 가까이 달려가서 보면 황량한 들녘일 뿐이다. 우리는 마술사의 손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어린 아이처럼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얼마나 신비롭고 낭만적이던지 모두가 마법에 걸린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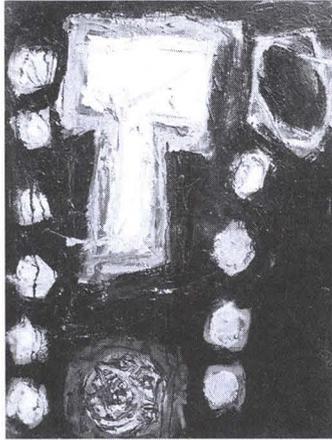
신기루는 대기내에서 일어나는 빛의 이상굴절현상이다. 지면 또는 수면에 접한 부분의 기온이 어떠한 원인으로 상당히 높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낮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공기의 빛에 대한 굴절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먼 곳의 물체가 실제와 다른 위치에서 보이게 된다. 이런 현상이 신기루이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낭만이 아닐까. 하느님 나라도 그러할 것이다. 어느 순간에 만났던 신비로운 체험이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유난히 밝은 하늘의 별빛을 눈여겨 보다가 예수님의 별임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을 나는 사랑한다. 아기 예수님께 바칠 선물 꾸러미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서 먼

길을 걸어가는 동방박사들의 향기로운 마음은 또 얼마나 낭만적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을 낭만으로 바꾸어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줄 아는 진정한 로맨티스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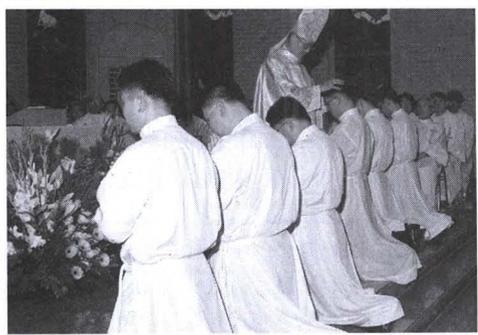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시관을 보며 그 수난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시기와 모험속에서도 용기있게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희망의 등불을 내거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선택받은 영혼일 것이다.

사소한 일상에서 낭만을 발견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의 신앙도 대기중의 빛에 의해 굴절되어 어느 하늘로 비취지고 있을 거라 믿는다.

“덕(德) 있는 영혼들의 정신안에는 하늘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혼들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열정들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김혜선(아녜스)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 ▶ 짧은 묵상 긴 여운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마르 9,7 -



● **삼천동 성당 주교님 사순절 신앙강좌**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3월 6일(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500여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을 주는 힘이신 성령'이라는 주제로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사순절 신앙강좌를 가졌다.

첫날 자연(바람, 물, 불)은 생명의 토대이며 생명체중의 생명체인 인간을 살려주고 '자연은 생명을 주는 '영'인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표상들이라는 내용의 강좌를 시작으로 3월 11일(토)까지 6일 동안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계속됐다. [서장경 기자]

● **해월리 피정의 집 축복식**



하느님의 품속처럼 조용하고 포근한 산중에 둥지를 튼 해월리 피정의 집 축복식이 지난 3월 4일(토) 11시 30분 이병호 주교 주례로 많은 신자들과 봉사자, 교구청 신부, 이웃기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병호주교는 강론에서 "거룩한 날에 하느님께 바쳐진 특별한 공간이, 젊은 사람들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튼튼한 기둥으로 양성하여, 주님 앞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야한다"고 말했으며, 건물 성수예식과 평화의 노래로 축복식을 마쳤다.

해월리 피정의 집은 전주에서 20분 거리의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198번지에 위치하고, 청소년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교육국(국장=주목성 신부)에서 관리하며, 대지1,800평위에 건평220평 규모로 기도, 묵상을 위한 기도방(30명수용)과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강당(120명수용), 야외프로그램이 가능한 운동장, 객실(112명수용), 식당(150명수용)등을 갖추고 있다. [이원엽 기자]

● **나운 2동 성당 전신자 선교교육**



나운2동 성당(주임=이영우 신부)은 지난 3월 1일(수) 김창렬 형제(인천교구 만수6동 성당 선교분과장)를 강사로 본당선교 활성화를 위한 전신자 선교교육을 가졌다. 김창렬 형제는 하느님을 만난 자신의 신앙체험을 전하고 "하느님이 주신 사명인 선교를 통해서 하느님 현존의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천주교회의 문제점인 냉담자 증가와 예비신자 감소를 지적하고 감동선교의 6단계로 '대상자 선정과 봉헌, 기도, 방문, 권면, 입교준비, 입교 후 돌보기' 등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들려줬다. 이날 참석한 신자들은 '기도하자! 찾아가자! 데려오자!'는 선교구호를 외치며 새로운 양 찾기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오안라 기자]

● **교구 기자단, 쌍백합편집위원 성지순례**



지난 3월 1일(수) 교구 기자단(지도=서석희 신부, 단장=김영수)과 쌍백합편집위원(편집장=양선자)은 충남 갈매못 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에 이뤄진 성지순례를 통해 순교자들의 거룩한 정신을 되새기며 서로가 하나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홍보국 취재]

● **금암동 성당 사순절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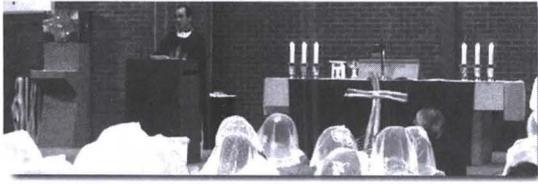
금암동 성당(주임=김요안 신부)은 예수님의 죽음과 수난에 참여하면서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지내고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 특강을 지난 5일 주일 교중

**KIA 기아자동차**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신용입니다.  
 · 승용, 1톤, RV등 전차종 다양한 할부이벤트  
 (계약금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 신차구입시 중고차를 최고가로 매입해드립니다.  
 · 타사 차량도 상담해드립니다.  
 ■ 차량상담 : 011-793-8686  
 ■ 야 간 : ☎(063)254-7226  
 담당:차장 김영기(스테파노), 장영주(요셉파)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대 학 약 국**  
 (전북대병원 신장문 앞)  
 약학박사: 김용기(베드로)  
 ☎(063)275-5700  
 FAX. (063)275-5760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향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이관재  
 ☎ 228-6002~3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는 큰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처럼 서로가 돌이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성 기자

## ● 여성연합회 정기 총회

교구여성연합회(지도=조정오 총대리 신부, 회장=장옥희) 제 17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8일(화)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에서 각 본당 여성부 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는 조정오 총대리신부의 강의와 2005년 결산보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등의 정기총회,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됐다.

여성연합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정성화와 사회복음화, 우리농촌 살리기를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 확정했다.

|이관영기자

미사 중에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치명자산 김봉희 신부는 "빠스카 신비 안에서 사순절 동안 회개와 속죄를 통해 부활 신앙을 확실히 믿고 부활을 경축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으면 한다"며 "하느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수도 기자

## ● 용머리 성당 사순절 영성 심화 특강

지난 3월 3일(금) 용머리 성당(주임=김영수 신부)에서는 고통의 의미를 주제로 예수수도회 최프란치스카 수녀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최수녀는 "진정한 고통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지나친 속박과 타인의 구속에서 출발하며 용서가 없으면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자신과 서로가 자유로워지며 굴레를 벗어 주었을때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사순시기에 할 수 있는 진정한 단식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임신부는 직접 제작한 영상자료를 감상하는 시간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성체강복 및 성시간을 통한 자아성찰의 기회도 함께 가졌다.

|홍보국 정리

## ● 서신동 성당 어르신 효도잔치



서신동 성당(주임=전대복 신부)은 지난 3월 5일(주일) 교구미사 후 본당 교육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130분을 초청하여 어르신 효도잔치를 열었다.

본당 여성분과에서 주최한 이 잔치는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이 제공되었다.

|유장근 기자

## ● 팔복동 성당 사순절 특강



팔복동 성당(주임=최중수 신부)은 사순 제1주일을 시작하면서 시인이자 동화작가이고 번역가인 이현주 목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글을 쓰고 있으며, 개신교 신자들보다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더 친숙한 이 목사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신 사랑이라

## ● 가톨릭 문우회 1일 파정

가톨릭전북문우회는(지도=홍보국장 서석희 신부, 회장=이소애) 지난 3월 5일 소양 성 바오로 복지병원에서 '하느님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 성령의 현존은 어디에' 라는 주제로 하루 파정을 가졌다.

안득수 선생(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장)의 '좋은 성령이시여 함께 역사하소서' 라는 강의와 성령체험기도는 하느님의 강력한 힘을 문우회원들에게 뜨겁게 불어 넣어주었다.

이날은 음악기도와 함께 사순 제1주일을 차분하게 맞이하였으며 회원들은 모두 기쁨에 충만되어 하느님의 메시지 전달자라는 사명감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파견미사로 파정을 마쳤다.

|홍보국 정리

### 남문문구도매센터

(교우분들 특별할인)

문구·사무용품·대형마트식 매장

주차장 완비, 배달 가능

대표 원수관(아고보)·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옆

☎(063)283-3352 / H·P 011-652-7721

고급 생선(도매, 소매)

### 100번 수산

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 젠티아트

전진아(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티마트 야외주차장 옆



교구장 일정

- **수녀연합회 특강**  
3월 14일(화) 오전 10시 센터
- **사제평의회**  
3월 15일(수) 오후 2시
- **신동성당 사순특강**  
3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 **교구 사제 월례묵상회**  
3월 16일(목) 오전 10시
- **치명자산 성지개발 국제 세미나**  
3월 18일(토) 오후 1시 30분 성심학교
- **견진**  
3월 19일(주일) 오전 10시 우아동
- **전례분과 교육 강의, 미사**  
3월 19일(주일) 오후 2시

미사 · 행사 · 모임

- **가정성화 미사**  
3월 13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 성당
- **M.B.W. 끈비벤자**  
3월 13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3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사제평의회**  
3월 15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교구 사제 월례묵상회**  
3월 16일(목) 오전 10시 천호
- **성지개발 팸투어 및 국제 세미나**  
3월 18일(토)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
- **수녀연합회 3월 모임**  
3월 14일(화) 센터 / 강사 : 이병호 주교  
회비 : 1인당 2만4천원, 분원당 1만원 추가
- **익산 하나회 미사**  
3월 19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성당
- **초남이 성지 사순절 미사**  
(월) 9시 30분 버스(전동-중앙-덕진-동산)  
(매일) 10시 30분 미사봉헌 십자가의 길  
(버스 붐고 단체 214-5004, 5013 수녀원)  
(토) 2시 붐고(중앙-덕진-팔복-동산)

- **치명자산 사순절(40일)미사**  
새벽 5시 30분 웅기가마 성당 : 윤양호신부  
산상미사 : 오전 11시

교육 · 피정 · 연수

- **구역(반)장 교육(군산지구)**  
3월 14일(화) 오후 2시 둔율동
- **천호피정**  
3월 14일(화) 오전 10시
- **본당 청소년분과장 연수**  
3월 19일(주일) 오후 3시 센터
- **홍보분과 연수 1차**  
3월 19일(주일) 오후 2시 센터
- **2006년 춘계 가톨릭간호사 피정**  
3월 19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주제 : '믿음을 통한 구원 (로마서 중심)  
강사 : 여희구 신부 / 준비 : 미사, 필기도구  
참가비 : 35,000원(3월10일까지 참석여부확인)  
문의 : 250-1380, 010-7616-6013  
주차 : 우리 주차장(구 2청사 측면 건너)
- **제1차 전례봉사자 연수**  
3월 19일(주일) 오후 2시 윤호관  
대상 : 본당 전례봉사자 / 참가비 : 1만원  
준비물 : 필기구, 미사도구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및 사랑의 다리 후원회원 피정**  
3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 회비 : 5천원(점심제공)  
주제 : '살아있는 신앙의 삶-기도생활, 감사생활'  
강사 : 김정희 수녀(한곡순교복자수녀회)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인원 : 선착순 100명  
참가대상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사랑의 다리 후원회원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문의 및 참가신청 : 284-5290 사회사목국  
교통 : 오전 8시 50분 전통성당 출발

기타

- **희망 콘서트**  
3월 25일(토) 오후 7시 전통성당  
출연 : 창세기, 평화동 씨앗, 전통  
글로리아 성가대, 생활성가 가수 나정신
- **사순절 특별할인 판매**  
the Miracle Maker(비디오)  
27,000원→17,000원  
판매처 : 전주 바오로딸 서원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후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후원계좌번호 : 선녀머중합사회복지관  
전북은행 541-13-0311676  
문의 : 232-0334, 286-0334

새 가톨릭센터 신축현금 내역(2/27~3/5)  
이건우 엘리사벳 50,000  
평협(녹중탕 판매 기금) 15,000,000

**좋은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3월

일 시 : 3월 15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06분  
문 의 : 홍보국 285-0041

**사순절 특별영화!**  
이 영화에서 제작자 노만 주이슨은 아름다운 광경과 함께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의 주옥같은 음악들을 담은 멋진 작품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예수 최후의 7일간을 음악과 노래로 표현하는 웅장하고 독특한 뮤지컬을 시작한다.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적 사람으로 제주관광 및 성지를 정성껏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 · 호텔 예약 문의  
☎(064)758-6476 H·P 011-697-6476

**사은특별강연**

주제 : '하늘을 밟고 싶은 행복의 문이 열린다.'  
(강사 차동업 신부)창간 2주년 사은강연  
문의 : 02-322-1025 월간 참소중환당신  
(강의 미래사목연구소)  
일시 : 3월 20일(월) 오후 1시 전통성당

패적인 인원실, 물리치료실

**(익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로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일리앙스 웨딩홀)

**성지순례**

116차 동유럽 성지순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일시 : 4월 26일~5월 3일(7박 8일)  
매일 미사드립니다.

문의 : 063-288-6666  
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

**LG패션-티피코시**  
(남·여 캐주얼)

**여직원 구함**

오정애(젼마)  
효자동 서부시장 입구  
문의 : 224-1281

서곡 밝은눈 안경원(확장 이전)  
**Eye마트 안경원(송천점)**

오형숙, 정숙미(안젤라)

송천 대명 APT앞  
☎ 271-0220



## ▶전주 치명자산 성지개발 국제 세미나 개최◀

전주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순교의 현장이며, 천주교 신자들의 성지순례 명소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적인 성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성지인 전주 치명자산에는 연중 성지 순례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으나, 주차장과 숙소,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하여 순례자들이 전주에 장시간 머무르지 못합니다. 또한 인근의 전통 생활문화체험지구인 한옥마을과의 연계성도 부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치명자산은 종교성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근 전주한옥마을, 후백제 남고산성, 조선 건국의 역사적 장소인 오목대와 이목대, 한벽루, 그리고 전주시민의 젖줄인 전주천 등 다양한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을 포괄하고 있어 이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종교문화, 자연자원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전주 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종교 순례객 등에게 최적의 휴식 및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천주교회사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인 치명자산을 중심으로, 유항검 가족의 순교사와 치명자산이 지니는 역사·문화사적 의미를 재확인하여 전주의 천주교 성지를 국제적인 종교성지로 발전시키는 천주교 성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성지개발에 성공한 세계 유명 성지의 사례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하여 치명자산의 성지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며,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전주시의 후원으로 '전주 치명자산 성지 개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6년 3월 18일(토) 13:30~17:30

◎장소 : 전주성심여고 성당

◎세미나 일정

〈제1부〉

▶사회자 :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주제발표자

-제1주제 : 김진소(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신부)

‘유항검가족과 유요한·이루갈다 동정부부 신앙의 의미’

-제2주제 : 조광(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치명자산의 역사문화적 의미와 개발 방안’

▶토론자-김봉희(치명자산 성지 주임신부)-이종민(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홍성덕(전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제2부〉

▶주제발표자

-제3주제 : 문윤걸(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전주시 문화발전 전략과 치명자산 성지개발사업’

-제4주제 : Rev. Jean Michel Cuny(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원장, 파리외방전교회 순교자관 건립)

‘프랑스 성지개발 사례와 치명자산 성지의 발전 가능성’ 통역: 김덕수(전주 프랑스문화원 부원장)

▶토론자

-송광인(전주대학교 교수, 관광학), -서종태(호남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